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 Part \_ 6



## 나무: 인생을 바꾸는 삶의 태도



**강판권**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01. 인간성 : 인간으로 살아라(人→人間;時→空).**

생태(Eco)=자연생태에서 인문/사회생태로/공간/시간/인간  
자존(自尊), 자유(自由), 종수곽탁타전(種樹郭橐駝傳)

**02. 관찰력 : 수동의 삶이 아닌 능동의 삶을 살아라(教→觀).**

수동에서 능동으로(Why, How)/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꽃을  
보았는가? 창의성과 세계관

**03. 적응력 :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행동하라(靜→動).**

역(易)같은 세상-늘 푸른 나무의 자세

**04. 수용력 :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라(言/語→敬聽).**

말하기보다 듣기, 나무에게 배우는 경청의 자세

**05. 의지력 :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他→自).**

맹자의 왕도사상

**06. 판단력 : 몸을 낮춰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高→低;陽→陰).**

나무와 꽃, 식물인간, 풀과 나무/떨기나무(회양목/쥐똥나무)/세한도

**07. 원만성 : 종적인 삶에서 횡적인 삶으로 살아라(縱→橫).**

중흥무진, 테크노 춤, 나무의 성장방식과 삶의 방식/나무가 둥근 이유

08. 일상성 :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遠→近).  
인의 실천방과 공부법/박학(博學)과 독지(篤志), 절문(切問)과 근사(近思)

09. 통찰력 :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하라(短→長).  
짧게 보지 말고 길게/무용지용(無用之用)(『장자』)/장석과 상수리나무와 직목선벌(直木先伐), 감정선갈(甘井先竭) 『장자』 자신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다/콤플렉스를 이기는 법

10. 성찰력 : 모든 것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라(出→反).  
남 탓과 핑계, 나무가 비와 바람을 피하지 않는 이유/증자:戒之戒之,出乎爾者, 反乎爾者也

[01. 보충]

『초간노자』(1993년 호북성에 위치한 2300년 전 초나라 무덤에서 나온 괄점초묘죽간(郭店楚墓竹簡) )

1장

혼돈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니/有狀混成

천지가 생기기 전이었다./先天地生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이 고요했으며,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였으며, 언제나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았으니 천하만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寂寥, 獨立, 不改, 可以爲天下母

그의 이름을 모르고, 그저 자(字)를 ‘도(道)’ 라 불렀다./未知其名, 字之曰道

나는 억지로 그의 이름을 ‘대(大)’라 불렀다./吾強爲之名曰大  
대는 넓기 때문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大曰逝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한 없이 미치고,/逝曰遠  
한없이 미치니 제자리로 돌아간다./遠曰反  
하늘도 대요, 땅도 대요, 도도 대요, 왕 또한 대다./天大, 地大, 道大, 王大  
나라 안에는 네 가지 대가 있으며,/國中有四大焉  
왕은 그 중 하나다./王居一焉  
사람은 땅의 순리에 따르며,/人法地  
땅은 하늘의 순리에 따르며,/地法天  
하늘은 도의 순리에 따르며,/天法道  
도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道法自然

## 2장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은/天地之間  
풀무와 같지 않을까?/其猶橐籥與  
텅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으며,/虛而不屈  
움직일수록 힘은 더욱 세게 나온다./動而有出

### [07. 보충1]

허에 이르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하고,/致虛, 恒也  
중(中)을 지키려면 독실해야 한다./守中, 篤也  
(허에 이르러 중을 지키면)  
만물은 비로소 (생과 멸을) 시작하며,/萬物方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居以須復也  
 하늘의 도는 둥글고 둥글어서./天道員員  
 (만물은) 각각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各復其根

## [07. 보충2]

### 나이는 위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

모든 생명체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경우 세월의 흔적 즉, 나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나이테’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이 먹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다.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나이를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의 흐름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얼굴을 통해 자신의 나이를 민감하게 느끼지만, 요즘은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스스로 만족할 뿐 아니라 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남녀 노소 없이 젊은 얼굴, 즉 동안(童顏)을 갈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의 주름을 보는 순간 큰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 심지어 취업은 물론 취업과 무관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성형을 시도한다.

생명체가 나이를 먹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인간은 숙명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나이 먹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맹자가 말했듯이,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두 경우를

잘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이 먹는 것은 곧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우기면 불행만 다가온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나무도 인간처럼 나이를 먹지만 결코 세월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무는 거부하는 법이 거의 없다. 나무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눈이 오면 눈을 기꺼이 맞는다. 그러나 나무는 수동적으로 비바람을 맞이하지 않는다. 만약 나무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비바람을 맞이한다면 절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무가 어떻게 세월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면 인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무의 나이는 겉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나이테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무의 나이테는 삶의 전부를 보여준다. 나이테를 통해 나무의 삶은 물론 나무가 살아온 시대까지를 분석하는 학문이 ‘연륜연대학(年輪年代學, dendrochronology)’이다. 이 학문은 나무가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이 학문을 인정한다면 나무의 삶이 결코 나무만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나무, 나무와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륜연대학에서 ‘덴드로(dendro)’는 그리스어로 ‘나무’를, ‘크로노스(chrono)’는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연륜연대학은 나무의 나이를 통해 세상을 읽는 학문이다. 우리는 나이테의 폭과 하부구조를 통해 그 나이테 해당 연도에 내린 강수량과 비가 많이 내린 계절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폭이 넓은

나이테가 연속으로 등장하면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이고, 폭이 좁은 나이테가 연속으로 등장하면 비가 적게 내렸거나 가뭄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나무의 나이테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강우량은 나무의 삶은 물론 인간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 물이야말로 생명체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삶은 나이테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지만, 모든 나무들이 나이테를 온전히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무는 나이테가 선명하지만 어떤 나무는 나이테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대부분 나이테가 선명하지 않으며, 대나무의 경우는 나이테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나이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소나무다. 소나무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화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다. 전통시대에 한국인이 태어나면 소나무 가지를 꺾어 무병장수를 기원했고,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다가 죽으면 시체를 소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 묻었다. 이처럼 한국인은 소나무와 함께 한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소나무를 ‘으뜸’을 의미하는 ‘솔’이라 불렀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소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고, 소나무가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몸속에는 자연스럽게 소나무의 기억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녹아 있다. 한국의 지명중에서도 소나무와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는 통계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소나무의 잎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고,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소나무 잎을 부부의 사랑으로 여긴 것은 한 묶음이 두개인 잎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성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나뭇잎이 푸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소나무를 매화, 대나무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 즉 추운 계절의 세 가지 벗 중 하나로 여겼다. 그래서 소나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다. 이러한 사실은 애국가에 소나무가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소나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나무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영화 40도 이상에서도,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거뜰히 살아갈 수 있다.

지금도 농촌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성황당 중에는 소나무를 숭배하는 사례가 많다. 소나무 성황당은 우리 민족의 얼이 소나무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천연기념물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가 40종목으로 가장 많은 것도 한국인들에게 소나무가 신령스러운 나무, 즉 신목(神木)이기 때문이다. 나도 어린 시절에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자라고, 딸감을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소나무를 직접 베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한국의 산에는 소나무가 많지 않았다. 특히 큰 소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기 농촌 인근의 산은 거의 민둥산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시 농촌 생활은 몰래 소나무를 자르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나는 아직도 소나무의 줄기를 자른 후 바라봤던 나이테를 기억한다. 나무를 자른 후 나이테는 축축하다. 나이테의 축축한

모습은 나무의 눈물이다. 나무를 금방 자른 후에는 나이테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소나무의 나이테를 선명하게 파악하려면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만 소나무의 삶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소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연구실에서 소나무 나이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실의 죽은 소나무는 고향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죽은 소나무가 내 곁으로 오기까지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적지 않다보니 내 고향에도 빈집이 많다. 그 중 동네 형 집도 사람이 살지 않아 집 근처의 한옥이 헐렸다. 고향의 부모님이 한옥을 헐면서 생긴 목재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 근처에 쌓아두었다. 어느 날 고향에 가니 쌓아둔 소나무 목재가 있었다. 나는 당장 그 목재를 차에 싣고 탁자를 만들었다. 그 당시 고향에서 목재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쯤 재로 변하고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나이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거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면 나무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를 안쪽에서 밖으로 세는 것과 밖에서 안으로 세는 것은 나이를 계산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같지만, 다른 점도 있다. 안쪽에서 밖으로 세는 것은 나무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셈법이고, 밖에서 안으로 세는 것은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나무의

나이테는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바깥쪽의 나이테는 가장 최근의 생장륜(生長輪, growthring), 즉 자라는 나이이다. 연구실의 소나무 나이테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어보니 41개이다. 만약 이 나무가 2012년에 잘렸다면 2012년에서 41을 빼면 소나무는 1971년생이다.

나무의 나이테 중 바깥쪽은 변재(邊材)이고, 가운데는 심재(心材)다. 그런데 물관세포가 있는 바깥쪽 변재는 살아 있지만, 안쪽인 심재는 죽었다. 그래서 나무는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 철저하게 공존한다. 나무는 죽은 것을 안쪽을 빈틈없이 채우면서 삶을 유지한다. 나무는 죽음을 끌어안고서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한다. 아니 나이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인간이 나이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무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나무처럼 살아간다면 나이를 먹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이를 ‘수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수직으로 생각하면 나이는 한 해마다 한 살씩 축적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한 해 한 해를 두려운 마음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그러나 나무는 인간처럼 한 해에 한 살씩 먹지만 결코 나이를 수직으로 축적하지 않는다. 나무는 나이를 수평으로 축적한다. 나무의 이런 삶이 사람보다 오래사는 비결이다. 나이바퀴를 의미하는 ‘연륜’을 이해하면 나무가 사는 법을 알 수 있다. 연륜은 나이가 곧 바퀴라는 것이다. 인간은 왜 나이를

바퀴에 비유했을까. 인간 스스로 나이를 바퀴에 비유했다면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퀴는 둥글고, 둥근 것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나무는 나이를 수평으로 먹으면서 몸을 둥글게 만든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진정으로 연륜이다. 나무는 어떻게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을까. 나무가 몸을 둥글게 만든 비결을 아는 순간, 인간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무는 곁에서 보면 앞뒤의 구분이 없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나지 않고 둥글게 살았다는 뜻이다. 나무가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수직과 수평, 종과 횡을 막힘없이 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무는 매일 평등하고 공평한 하늘의 기운을 먹고 성장한다. 그래서 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늘은 막힘도 없고 평등·공평하다.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지만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나이테는 수평으로 뻗는다. 한 쪽은 위로 향하고, 다른 한 쪽은 아래로 향하는 절묘한 조화가 나무의 삶이다. 나무의 나이테가 수평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려면 가지를 보라.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면서 가지는 옆으로 뻗기 때문이다. 나무는 햇볕을 먹기 위해 수직 상승하지만 수직 상승하는 힘만큼 ‘수평 살이’에도 같은 힘을 쏟는다. 그래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인간의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도 마찬가지다. 나무의 나이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사람의

주름이 다른 것은 곧 삶의 흔적이 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실에 있는 소나무의 41개 나이테는 모두 모양이 다르다. 나이테마다 모양이 다른 것은 해마다 삶이 달랐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간혹 하루, 한 달, 일 년을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루에도 변화무쌍한 삶을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나무 나이테의 모습도 큰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이다. 나이테 하나하나마다 1년 동안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한 존재가 ‘결’ 대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내가 매일 바라보는 소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심재에 십자가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다. 십자가 모양의 검은 무늬 중 두 곳에는 웅이가 있고, 검은 무늬는 20살까지 뻗어 있다. 검은 무늬는 웅이가 만든 것이다. 연구실의 소나무는 공자가 말한 불혹의 나이 40년 동안 살면서 20년 간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 소나무의 전반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나이테 간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부의 나이테는 후반부의 나이테 간격보다 좁다.

‘결’은 무늬다. 누구나 결대로 살고 싶지만, 살다보면 결대로 살지 못하고 ‘웅이’를 만난다. 나무의 웅이는 외부의 상처다. 웅이는 외상이 깊어 안에서 생긴 고통의 흔적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군들 웅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누구든 옹이 하나쯤은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옹이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옹이는 나무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희망의 에너지다. 옹이를 만나면 톱마저 지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옹이는 다른 나무의 몸 전체를 보호한다. 살면서 생기는 고통은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지만 고통을 이기고 나면 훨씬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옹이는 일종의 견디는 힘, 즉 내성(耐性)이다. 나무가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살아가면서 만든 내성 때문이다. 사람도 내성 없이는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나이는 모든 생명체의 역사다. 사람도 나무처럼 나이를 몸속에 담고 있다. 한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인간도 나이를 부정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할 경우 속이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설령 속이더라도 몸속의 나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간이 자신의 나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라는 시간, 즉 세월이 몸을 유지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체의 몸은 결코 혼자서 유지할 수 없다. 몸은 나이라는 시간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을 때만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으로 세월의 시간을 먹으면서 소화하지 않고 몸 밖으로 토해내려고 한다. 시간을 쌓지 않고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 살았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시간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자신이 살았던 시간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나이테를 만든다. 나무의 나이테는 순전히 시간을 축적한 결과이다. 나이테를 많이 만들수록 삶의 지혜는 깊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촘촘한 나이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얼굴의 주름을 보면서 한숨짓기보다는 주름 속에 담긴 얘기를 찾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오래 사는 나무가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듯, 나이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드물다.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존재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도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듯, 인간도 나이 먹을수록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서 한층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위로 성장하면서 옆으로 나이를 먹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하다.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grid pattern below the solid line.





제14기 가야학아카데미

| 삶에 깃든 인문학 |



# Part \_ 7



## 우리 고장의 선비, 남명 조식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 01. 왜 남명인가?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는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두 분 이외에도 선비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인물들, 흔히 ○○先生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 선생들 가운데 퇴계·율곡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南冥 曹植(1501 ~ 1572)인데, 그는 우리 고장 김해와 깊은 인연이 있다. 그의 처가가 김해 탄동(현재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이었으며, 이곳에 山海亭을 짓고 15년 동안 벼를 사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유적이 新山書院으로 남아있다. 그의 삶과 생각을 통해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살펴보고, 또 그를 거울삼아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을 비추어볼 수 있을 것이다.

## 02. 남명의生平

### 1) 出生과 修學

남명의 고향은 경상도 三嘉縣(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이다. 그가 태어난 외가 역시 그곳이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任地를 따라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다. 당시의 젊은 선비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열심히 과거 공부[學業]를 하고 응시도 하였으나 급제하지는 못했다. 22세에 南平曹氏 忠順衛 曹琇의 따남에게 장가들었다. 25세 무렵에 과거 공부와는 다른 학문의 세계, 즉 道學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은 거업과 도학, 두 가지 공부를 함께 하였다.

## 2) 金海 시기

26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르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김해로 옮겨가 살았다. 신어산 아래 따로 精舍를 지어 산해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일까? 아니면 산 같이 높고, 바다 같이 거대한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뜻일까? 南冥이라는 호도 여기서 비로소 사용했다. 남명은 『莊子』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北冥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鯪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곤이 바뀌어 새가 되면 鵬이라고 한다. 이 봉새의 크기 또한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는 구름과도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南冥으로 날아간다. 남명은 곧 天池를 말한다.

남명은 老莊의 세계까지 받아들이면서 거대한 정신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남명이 산해정에 있을 때 많은 벗들이 이곳을 찾아 함께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모두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處士들이었다. 남명이 남긴 시 가운데 「種竹山海亭」이라는 한 수 있다.

대나무는 외로울까 외롭지 않을까	此君孤不孤
소나무가 이웃이 되어 있는데.	髡叟側爲隣
바람 불고 서리 내리는 때 기다리지 않더라도	莫待風霜看
싱싱한 모습에서 참다움 볼 수 있나니.	猗猗這見眞

늙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 김해에 살고 있으나 외로웠던 모양이다.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산해정을 찾아오는 벗들이었다. 송죽 같은 志節을 간직하고 있는 벗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던 모양이다.

36세 되던 첫째 아들 次山이 태어났고, 이해에 처음으로 棲庵 鄭之麟이라는 제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접었다. 出仕해서 배운 바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뜻을 접고, 退處의 삶을 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즈음 그의 학문과 도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앙 관료들이 그를 천거하였고 벼슬이 내려졌다. 이후 중종, 명종, 선조의 3대에 걸친 임금이 그에게 벼슬을 내렸으나 그는 한 번도 출사하지 않았다. 한번 퇴거하기로 먹은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戚臣政治가 이루어지는 조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오히려 在野에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다.



### 3) 三嘉 시기

45세 되던 해에 어머니상을 당했다. 삼가로 운구해 아버지 산소 곁에 장사지내고 시묘살이를 했다. 삼년상을 마치고는 삼가에 鷄伏堂과 雷龍畝를 짓고는 김해의 생활을 정리했다. 그의 본격적인 교육활동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계부’는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계부당은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 차분히 침잠하여 학문과 인격을 함양하는 집이 된다. ‘뇌룡’은 『장자』의 “연묵이뇌성(淵默而雷聲) 시거이용현(尸居而龍見)”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다. “깊은 연못처럼 고요히 침잠해 있다가, 때가되면 천둥처럼 세상을 울리고, 尸童처럼 가만히 있다가 때가되면 용처럼 신묘한 조화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남명이 비록 노장의 세계까지 받아들이지만 그의 뜻이 修己治人이라는 유교의 근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명이 살던 그 시대가 남명의 ‘신묘한 조화’를 용납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편, 남명을 조정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55세 되던 해에는 단성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는 벼슬에 나가는 대신 상소하여 국정 전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乙卯辭職疏’ 혹은 ‘丹城疏’라고 불리는 유명한 상소문이다. 그 내용 가운데 ‘대비[문정왕후]는 궁중의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명종은 이 구절을 핑계 삼아 남명을 不敬罪로 처벌하고자 했다. 그러나 초야의 명망 높은 선비를 처벌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명종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 구절의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그 상소문에는 목숨을 건 선비의 절절한 비판이 가득하였다.

전하의 나라일이 이미 그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버렸고, 민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백 년 동안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어 잔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가 있는데,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충성된 뜻 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선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쓸 곳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낮은 벼슬아치는 아래에서 히히거리면서 주색만을 즐기고, 높은 벼슬아치는 위에서 어름어름하면서 오로지 재물만을 늘리며, 물고기의 배가 썩어들어 가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선왕조는 天命과 民心이 떠나버린 나라라고 했다. 이런 나라에서 자신처럼 무능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금이 스스로 王道의 법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물을 넘기고도 아직 대비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 명종의 귀는 망해가는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의 울음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손하지 못한 건방진 선비만 보일 뿐이었다.

#### 4) 德山 시기

명종 16년(1561)년, 남명은 지리산 아래 德山 絲綸洞(현재 산청군 시천면 사리)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가 남긴 「遊頭流錄」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 일찍이 이 두류산에 덕산동으로 들어간 것이 세 번이었고, 청학동과 신흥동으로 들어간 것이 세 번이었고, 용유동으로 들어간 것이 세 번이었으며, 백운동으로 들어간 것이 한 번이었으며, 장항동으로 들어간 것이 한 번이었다. 그러니 어찌 다만 산수만을 탐하여 왕래하기를 번거로워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나름으로 평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오직 華山의 한 쪽 모퉁이를 빌려 그곳을 일생을 마칠 장소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마음과 어긋나서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배회하고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오곤 하였으니, 이렇게 했던 일이 열 번이었다.

남명은 일찍부터 지리산 자락에 평생의 거처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만큼 지리산을 사랑했던 것이다. 이제 나이 60이 넘어 지리산 자락에 거처를 정하고는 그곳에 山天齋를 지어 자신과 제자들의 강학 장소로 삼았다. 山天은 『周易』 大畜卦의 형상을 가리킨다. 옛 사람들은卦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하늘이 지극히 큰 것인데 이것이 산속에 있다는 말은 쌓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군자가 그 상징을 보고서 크게 쌓고 축적한다. 사람은 학문을 통해 많은 것을 쌓고 축적할 수 있다. 옛날 성현의 언행을 많이 들어 그들의 발자취를 상고하여 행실을 관찰하고, 그들의 말씀은

살피서 마음을 추구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덕을 쌓아 완성하는 것이 대축의 뜻이다.

남명은 지리산 아래에서 학문 혹은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유명한 「題德山溪亭柱」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했다.

천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종을 보소서	請看千石種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오.	非大扣無聲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爭似頭流山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天鳴猶不鳴

남명이 지향하는 인격의 크기는 두류산처럼 컸다. 그 두류산은 하늘을 울릴 만큼 세계 두드러도 소리조차 나지 않는 종처럼 컸다. 남명의 인격을 평할 때 ‘壁立千仞’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처럼 큰 인격을 가졌으니 천길 절벽처럼 우뚝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선조 5년(1572) 2월 8일 산천재에서 숨을 거두자 문인들은 그를 산천재 뒷산에 모셨다. 1576년에는 유림과 제자들이 덕산에 덕산서원을, 삼가에 晦山서원을 건립했다. 2년 뒤인 1578년에는 김해에 신산서원을 건립했다. 광해군 1년(1609)에는 이 세 서원 모두 사액하여 德川서원, 龍巖서원, 신산서원이라 하였다.

### 03. 남명의 학문

선비들의 공부는 크게 과거 공부와 도학으로 나뉜다. 전자가 경전과 역사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詩文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공부이다. 젊은 시절의 남명은 과거 공부에 힘쓰기도 하였으나 마침내는 오로지 도학에만 매진하였다. 남명은 이 도학을 설명하면서 “성현의 천만가지 말을 요약하면 결국 敬과 義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흔히 ‘경이직내(敬以直內), 의이방외(義以方外)’라고 하듯이, ‘경’은 올바른 마음을, ‘의’는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공부였다.

남명이 경과 의를 모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히 의를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남명과 동시대를 살았던 退溪 李滉의 학문과 비교할 때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 퇴계가 심성 수양을 강조했다면, 남명은 마음공부가 실천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또 남명과 퇴계의 학문적 차이를 이론과 실천에 대한 강조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 四端七情論爭을 둘러싼 두 사람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사단칠정론은 善惡에 대한 성리학적 이론이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착한 인간, 즉 군자가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이론적 탐구였다. 퇴계와 高峯 奇大升이 8년에 걸쳐 벌인 그 논쟁은 당시의 많은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남명은 그 두 사람의 논쟁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퇴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지만,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으니, 심분 억제하고 타이르심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자년(명종 19, 1564) 9월 18일 못난 동갑내기 樾仲 드림.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이 당시의 학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질책이었다. 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예절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라는 지적이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학문적 차이에 대한 기왕의 설명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남명 역시 義 못지않게 敬을 강조했고,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확고한 이론적 입장을 정립하고 있었다. 퇴계 역시 남명과 마찬가지로 敬과 義를 아울러 강조했고, 이론적 측면 못지않게 실천적 측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설명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試論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남명과 퇴계는 모두 조선 왕조가 도덕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랐다.

척신 尹元衡을 비롯한 관료들의 비리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그런 백성들의 눈에 富豪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임꺽정은 義賊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라의 朝廷이 싫어서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經世의 꿈을 접은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했다. 부귀만 탐하는 小人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도덕적인 君子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에 明宗은 물론이고 宣祖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군주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야의 선비들을 군자로 키워내는 일이었다. 언젠가는 이들이 조정에 나아가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여기까지는 남명과 퇴계가 함께 하는 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선비들이 살고 있는 향촌사회에서 善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문제는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정을 바라보는 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명의 눈에 당시의 조정은 惡의 편에 속할 뿐이었다. 그러나 퇴계의 눈에는 선과 악이 함께 뒤섞인 곳이었다. 평생을 처사로서 살았던 남명과,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반복했던 퇴계의 삶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명에게는 조정=소인과 향촌사회=군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아무런 회의도 없었다. 그러나 퇴계는 이 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사단칠정론에 대한 퇴계의 이론적 탐구는 동요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남명과 퇴계는 또 향촌사회의 선비들을 군자로 키워나가는 방법론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명은 선비 개개인의 심성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뉴월 하루 햇별에는 곡식이 익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 실천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비로소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퇴계는 선비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 군자를 길러내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모색의 결과가 書院과 鄉約에 대한 관심이었다.

## 04. 남명의 교육활동과 남명학파

修己治人은 모든 유학자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남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出仕가 아닌 退處의 삶을 택했고, ‘치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힘을 쏟았다. 자신의 힘으로 당대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도학자로서의 명망이 높아질수록 그를 찾아오는 문인들이 많아졌다. 지금 우리는 그의 문하에서 배웠던 이들 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南冥學派라고 부른다. 그만큼 남명의 학문적 영향 아래 있었던 문인들의 숫자가 많았고, 또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의 학문적 공통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척신정치는 끝났으나 그 폐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조정의 관료들은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였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 대립은 마침내 東人과 西人이라는 朋黨의 분립으로 이어졌다.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관료들이 동인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인 관료들이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인의 구성원들은 주로 남명학과와 퇴계학과에 속하는 젊은 선비들이었고, 서인들은 상대적으로 老成한 관료들이었다. 동·서인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과정에 栗谷 李珣가 西人을 지지하면서, 서인들은 율곡학과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다.

동·서인의 정치적 대립은 1589년의 ‘己丑獄事’ [정여립 모반사건]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수많은 관료들과 선비들이 정여립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에 처해졌다. 공교롭게도 피해를 당한 인물들 가운데 남명학과를 대표하는 崔永慶이 포함되었다. 그는 1590년에 獄死했으나 그 다음 해에 바로 伸冤이 되었으니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를 정여립과 연루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 서인을 대표하는 鄭澈이었으니 남명학과와 서인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 1591년 서인이 失勢하고 동인이 다시 집권했을 때 서인에 대한 강온의 입장에 따라 동인은 北人과 南人으로 나누어졌다. 남명학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북인이, 퇴계학과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인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제 붕당의 대립은 잠시 접어두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다. 한양으로 진격하는 데 집중했던 왜군은 개전 초기에 낙동강 서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남명학파의 선비들은 가장 먼저 의병항쟁에 나섰다. ‘紅衣將軍’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郭再祐는 물론이고, 대표적인 의병장인 金沔, 鄭仁弘 등이 모두 남명학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이들이 의병항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북인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임난 이후에 북인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의 핵심 세력은 세자인 光海君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남명학파였으니 자신과는 성향을 달리하는 서인과 남인을 소인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은 율곡은 물론이고 퇴계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서·남인과 대립하였다. 세 봉당이鼎立하던 시기에 한 봉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봉당을 배척하면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북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그 결과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흔히 ‘廢母殺弟’라고 부르는 사건이 그러한 상황의 결과였다. 북인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가진 서인과 남인은 ‘仁祖反正’으로 북인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북인이 다시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그 결과 서인이나 남인에 맞설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북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남명학파는 퇴계학파나 율곡학파에 버금가는 학파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05. 남명에 대한 평가

한때 선비문화를 대표했던 남명은 조선왕조의 역사 속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가장 큰 원인은 인조반정일 것이다. 반정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서인, 그리고 이 서인의嫡統 세력인 老論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면서 남명은 역사의 표면에 떠오를 수 없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은 남명의嫡傳 제자인 정인홍이었다. 그러나 정인홍에 대한 비판은 남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 일쑤였고, 이들 師弟는 조선왕조의 유교문화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

남명학파가 이룬 시기에 그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명 집안의 종가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역시 남명이 잊힌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18세기 이후 선비문화는 종가문화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역사적 퇴행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종가문화의 정점에서 성립한 것이 바로 19세기의 세도정치였다. 이 시기의 종가문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문중은 자신들의 선조를 적극적으로 추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아마 남명의 집안이 그러했던 것 같고, 그 결과 창녕 조씨 문중에서조차 남명을 추송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명은 성리학의 이론적 탐구에 큰 흥미를 갖지 않았다. 그는 성리학에 관한 그의 견해를 살필 수 있는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유학자들이 남긴 이론적인 글을 중심으로 인물을 연구하는 풍토 속에서 남명의 학문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퇴계나 율곡에 관한 연구는 넘쳐나지만 남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경상대학교의 남명학연구소가 있어 남명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가고, 남명을 기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최근에 그 대학의 한 교수는 남명의 평전을 쓰면서 그 제목을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많은 선비가 권력과 명예를 좇을 때 남명은 退處의 삶을 통해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